

全北新書 8

全北의 민謡

김익두 편저



社団法人 全北愛郷運動本部

全北新書 8 全北의 民謠

1989년 12월 8일 초판인쇄

1989년 12월 11일 초판발행

편저자 : 김 익 두

발행처 :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
전북 전주시 경원동 1가 58-4

560-020

☎ (0652) 84-7362

인쇄처 : 신 아 출 판 사 ☎ 754000

[비매품]

차 례

- 發刊辭 / 21
- 祝刊辭 / 23
- 推薦辭 / 25
- 序文 / 27

제 1 부 전북민요의 개관 33

I. 서 론 35

1. 민요의 일반적 성격 37

2. 세계민요와 한국민요 38

II. 본 론 39

1. 지역구분 41

2. 지역별 특성 42

(1) 동부 산간지역 42

(2) 서부 평야지역 44

(3) 서해 도서지역 57

III. 결 론 63

제 2 부 전북민요 자료 67

I. 제의요(祭儀謠) 69

(1) 상여소리 71

(2) 달구소리 74

(3) 성주풀이 74

(4) 액막이타령 75

(5) 고사풀이	76
(6) 기타	76

II. 노동요(勞動謠)

1. 농업노동요	79
1) 논농사노래	81
(1) 물품기노래	81
(2) 논고르기노래	81
(3) 모노래	81
(4) 논매기노래	82
(5) 장원질소리	123
(6) 벼베기노래	159
(7) 등짐노래	162
(8) 타작노래	165
(9) 방아찢기노래	168
2) 밭농사노래	170
(1) 밭매기노래	174
(2) 콩꺾기노래	174
(3) 도리깨질노래	182
(4) 보리타작노래	183
2. 어업노동요	183
(1) 슬비소리	183
(2) 배치기소리	183
(3) 가래질소리	185
3. 기타노동요	187
(1) 집터다지는소리	189
(2) 울력가	189
(3) 말박기노래	189
(4) 목도질소리	190
(5) 그물만들기노래	190
(6) 불무질소리	191
(7) 삼삼기노래	191
	192

(8) 물레질노래	193
(9) 베짜기노래	194
(10) 다듬이질노래	197

III. 놀이요

(1) 줄놀이노래	201
(2) 강강술래	203
(3) 문열기	205
(4) 담넘기	207
(5) 고사리꺾기	210
(6) 기와밟기	210
(7) 청어엮기	211
(8) 징금마태우기	213
(9) 명석말이	214
(10) 줄다리기노래	214
(11) 기타	215

IV. 기타

(1) 동학혁명노래	217
(2) 동학혁명노래	219
(3) 각설이타령	225
(4) 육자백이	229
(5) 흥타령	230
(6) 아리랑	231
(7) 남원산성	235
(8) 서당도령	236
(9) 시집살이	240
(10) 못갈장가	263
(11) 못갈시집	266
(12) 딸노래	268
(13) 영감아영감아	270
(14) 미운오빠	271
(15) 타박네	271
(16) 어사옹	272

(16) 환갑노래	273
(17) 오륜가	274
(18) 자장가	275
(19) 탄노 · 사별 · 사친가	277
(20) 황아장수	287
(21) 중타령	288
(22) 선달네집안	290
(23) 달거리노래	291
(24) 징금마야 · 어르마야	292
(25) 등당개타령	295
(26) 글자풀이	296
(27) 동물노래	297
(28) 식물노래	310
(29) 음식노래	319
(30) 물건노래	324
(31) 애정 · 유락요	337
(32) 동요	360
(33) 기타 : 단가 · 기타 · 신민요	371
* 발문	384

받 : 헤에헤 헤이에헤
헤이에헤 에이아나헤

메 : 개상제를 지내서
받 : 헤에헤 헤이에헤
헤이에헤 에이아나헤

메 : 닭의 다리 뜯어가며
받 : 헤에헤 헤이에헤
헤이에헤 에이아나헤

메 : 수량 한번 채워 보세
받 : 헤에헤 헤이에헤
헤이에헤 에이아나헤

(9) 방아찝기노래

- ① 익산군 삼기면 오룡리 검지마을, 1983. 8. 12., 김익두 · 유화수 · 정우식 조사.
창자 : 박갑근, 남 · 62.

메 : 이 방아가 웬 방아냐
받 : 에 헤 방아헤

메 : 강태공의 조작이로다
받 : 아 헤 방아헤

메 : 기산 영수 별건곤
받 : 아 헤 방아헤

메 : 소부 허유 놀아 있고
받 : 에 헤 방아헤

메 : 보은 속리 문장대에
받 : 아 헤 방아헤

메 : 세조대왕 놓아 있고
받 : 아 헤 방아 헤

메 : 우리들은 놀 더 없어
받 : 아 헤 방아헤

메 : 이 방아로 놀아 보세
받 : 아 헤 방아헤

- ② 익산지방, 임동권 : 『한국민요집』.

메 : 이 방아가 웬방아냐
받 : 아헤 방아헤

메 : 강태공의 조작이라
받 : 아헤 방아헤

메 : 월궁 속에 옥토방아
받 : 아헤 방아헤

메 : 기산 영수 별건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소부 허유 놓아 있고
받 : 아 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보은 속리 문장대에
받 : 에 헤 방아 헤

메 : 세조대왕 놀아 있고
받 : 아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우리들은 놀 더 없어
받 : 아헤 방아헤

메 : 이 방아로 놀아 보자
 받 : 아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쿵닥쿵쿵 듣기 좋고
 받 : 아헤 방아헤
 메 : 보기 좋게 놀아 보자
 받 : 아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천황씨는 목덕으로 왕 하시고
 받 : 아헤 방아헤
 메 : 지황씨는 토덕으로 왕 하시고
 받 : 아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수인씨는 화덕으로 왕 하시니
 받 : 아헤 방아헤
 메 : 우리들은 이 방아로 왕을 하자
 받 : 아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이 방아를 짚어다가
 받 : 아헤 방아헤
 메 : 나랏님께 봉사하고
 받 : 아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한 참에 열두 도구
 받 : 아헤 방아헤
 메 : 백옥같이 짚어내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일락서산 해떨어진다
 받 : 아헤 방아헤
 메 : 부지런히 짚어내자
 받 : 아헤 방아헤
 메 : 아헤 방아헤
 받 : 아헤 방아헤
 메 : 방아 방아 웬 방아나
 받 : 아헤 방아헤
 메 : 월궁속에 옥토방아
 받 : 아헤 방아헤
 메 : 옷잉금님 나무베니
 받 : 아헤 방아헤
 메 : 강태공은 끌로 파고
 받 : 아헤 방아헤
 메 : 연인기자 기운 좋아
 받 : 아헤 방아헤
 메 : 보온 속리 운장대에
 받 : 아헤 방아헤
 메 : 천년 감춘 공덕방아
 받 : 아헤 방아헤
 메 : 낭산에다 성을 쌓고
 받 : 아헤 방아헤

메 : 군량미를 찢던 방아
 받 : 아헤 방아헤

메 : 메질 넷이 푹푹푹
 받 : 아헤 방아헤

메 : 동네 여인 흥이 나서
 받 : 아헤 방아헤

메 : 궁덩이춤 절로 춘다
 받 : 아헤 방아헤

메 : 어여루 방아야
 메 : 어여루 방아야

메 : 이 방아가 뉘 방아야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강태공의 조각이다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나라님께 봉사하고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선영께 제수하고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부모님께 전상하고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스의 스의 들어보면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무쇠라도 녹이난다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한참에 열두방아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부지런히 찢어내자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식차 식차 방아야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일락서산 해가 진다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백옥같이 찢어내자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쿵닥쿵쿵 듣기 좋고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보기좋게 놀아보세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보은 속리 문장대에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세조대왕 놀아있고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우리들은 놀데없어
 받 : 어여루 방아야

메 : 이 방아로 놀아보세
 받 : 어여루 방아야

③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 1982. 8. 15., 김익두·김현진·유명상·유화수 조사.
 창자 : 정성녀, 여·77세.

메 : 이 방애가 뉘 방애냐
 우리 동네 물방애냐
 받 : 에 에에 웃 방 애요

메 : 방아 우기는 저 큰아가
 방애만 자꾸 우겨라
 받 : 에 에라 웃 방 애요

매: 이 방애가 누 방애냐
강태공의 조작방애
받: 에 에아 옷 방 애요

매: 떨커덩 떨커덩 찡는 방애
언제나 다 찡고 밤마실 갈꺼냐
받: 에 에아 옷 방애로구나

- ④ 남원군 이백면 과립리, 1979. 8. 2., 최래옥 · 이강철 조사. 창자: 송경조, 남 · 79.

방아 찡자 방아 찡자
쿵덕쿵덕 방아 찡자
쿵덕쿵덕 방아 찡자
낮으로는 모실가고
밤으로는 방아 찡자

낮으로는 방아 찡고
밤으로는 모실가고
쿵덕쿵덕 방아 찡자
낮으로는 모실가고
밤으로는 방아 찡자

- ⑤ 남원군 운봉면 매요리, 1982. 10., 김익두 · 유화수 조사. 창자: 박봉예, 여 · 81.

얼크덩 달크덩 찡는 방애
언제나 다 찡고 모실가꼬

불쑥불쑥 넘는 밥을
언제나 다 묵고 모실가꼬

- ⑥ 전주지방, 김소운: 『조선구전문요집』.

방애 방애 방애로다
이게 이게 방애냐
강태공의 조작방애
산에 오르면 산중방애
들에 오르면 드들방애

물에 내리면 물방애
옛차옛차 방애로다
해 넘어 가는데
어서 찡고 가자
어서 찡고 가자

- ⑦ 정읍군 이평면 팔선리, 1975. 8. 20., 박순호 조사. 창자: 최만동, 남 · 56.

방아로구나 방아로구나
들로 내려서 드들방아
산으로 골라서 산중방아
남천 북천 회약방아

제주 용천의 들거리 방아
천시 대동이 늦어진다
어서 찡자 덜꾸덩
덜꾸덩 방아로구나

- ⑧ 부안군 산내면 마포리 유유동, 1981.,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조사. 창자: 이돈, 여 · 93.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국어문학』 22집, 1982.

이 방애가 뭘 방애
강태공에 조작방애요
산으로 올라 산들방애

들로 내려 드들방애
물로 들어 수중방애
남창 북창에 헤약방애

매 : 엉떡 밑에 물이나 진데 남을 어찌 셈기는가
 점심 나절 다 되얏는디 들놀지를 그리나 몰라
 받 : 콩 꽃에도 눈이 있는디 사람 디리고 눈 없을손가
 고개만 반짝 들고나 보소 오늘 해도 기울어 가네

매 : 콩밭에는 콩이사 좋네마는 새삼 찌서 못 먹겠네
 받 : 풋밭에는 풋이사 좋네마는 뜸물 찌서 못 먹겠네

- ①⑦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 1980. 1. 29., 최내옥 · 권선옥 · 강현모 조사.
 창자 : 임영순, 여 · 50.

매 : 이내 밭을 어서나 매고 임의 밭을 마주나 드세
 받 : 쇠끝 같은 지신 밭을 다 맬라다 금봉채를 잃고나 가네

- ①⑧ 전주지방, 임동권 : 『한국민요집』.

매 : 못다 맬 밭 다 맬라다 금봉채를 잃었구나
 받 : 이 밭 골짜기 어서 매고 임의 밭골 마자 매세

매 : 칼 찬 낭군 원했드니 지게 목발 두드린게 웬일이냐
 받 : 오르락 내리락 구두발 소리 우리님의 구두발 소리

매 : 사랑살랑 부는 바람 우리님의 한삼 바람
 받 : 제가 무슨 한삼일까 절로 부는 바람이로세

- ①⑨ 정읍군 태인면 태서리, 1975. 8. 20., 박순호 조사. 창자 : 김순임, 여 · 76.
 원광대 : 『향토 문화 연구』 1집.

사래 길고 장찬밭을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어서 어서 때가 되어
 오시객이 되거든
 우는 애기는 젖을 주고
 정든 님은 밥을 주고

- ②⑩ 정읍군 감곡면 방교리, 1962. 7. 10., 박순호 조사. 창자 : 강윤이, 여 · 48.
 원광대 : 『향토 문화 연구』 1집.

어제 난 방동산이
 그제 난 방동산이

하마 다 미었으면
 여기서 저만치 미어갔지

꼬부쟁이 할미꽃은
 싹날 적에 늙었는가
 웃날 적에 늙었는가
 호호백발 할미꽃
 천만가지 꽃중에서
 무신 꽃이 못 되어서
 호호백발 할미꽃이 되었는가

⑩ 김제지방, 임동권 : 『한국민요집』.

* 매화타령

에루화 매화로고나
 차문주가 하처재오
 목동이 요지행화촌이로다
 에화 매화로고나

(29) 음식노래

① 고창지방, 임동권 : 『한국민요집』.

* 음식 타령

서이 얹아 매양의
 상방의 도파주
 술은 디렸건만 안주를 디려라
 쇠양판의 갈비죽
 대양판의 제육정
 안주는 디렸건만 탕국을 디려라
 산으로 올라가서 청량집으로
 내려서 명기탕
 오드독 포드독 매초리탕
 음방으 톰방의 송어탕
 들로 내리어 깨우탕
 탕국은 디렸건만
 채수를 디려라
 한푼에 두푼에 돛너물
 첩바그 지바그 호박너물
 열었다 녹았다 녹두 채나물
 돌아간 물제나물

채수를 디렸건마는
삼실말을 디려라
멕기 좋다 청실롱
보기 좋다 홍실롱
등그러간다 포가지감
하나 깎어 놓아라
아니 먹고 무엇 하리
거드랑 거드랑 거리고 놀아 보세
거드랑 거드랑 거리고 놀아 보세

② 정읍군 북면 북흥리 탑성, 1983. 4. 9., 김익두 조사. 창자: 문성운, 여·68.

* 옛 타령

옛들 사리어 옛들 사
어디를 가머는 그저 주능가
이리 오라면 이리 와
동래 부산에 사탕옛
무주 금산에 인삼옛
울릉도는 호박옛
강원도라 대추옛
 시내 복판에 전보대처럼
늘씬늘씬 굵은 옛
부잣집 큰애기 궁둥이 빠지듯
지름이 잘잘 흐른다
해장 늙은이 신술팔 듯
길가는 큰애기 눈팔 듯이
선달 큰애기 개밥 퍼주 듯
되는 대로 다 파는 옛
어디를 가면 거저 중가
이리 오라믄 이리 와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이내 목판에 옛 떨어진다
에야 뒤여허 내 사랑이로구나

③ 고창지방, 임동권:『한국민요집』

자아 옛이야 옛
맛 좋고 빛 좋은

전라도 담양의 찹쌀엿
 처녀가 먹으면
 시집을 가고
 총각이 먹으면
 장개가는 엿
 자아 떨어진 고무신이나
 백철 부러진거나
 삼베 속옷 떨어진거나
 있는 대로 가지고 와요
 선달 큰애기 개밥 주듯
 팔고 가네 자아 싸구려
 엿덜 사요 엿덜 사

- ④ 진안군 용담면 와룡리, 1982. 8. 15., 김익두·유화수 조사.
 창자: 김찬권, 남·83.

* 범벅타령

어리야 둥글 범벅이야
 어리야 둥글 범벅이야
 누구 잡수실 범벅인가
 아무나 잡수실 범벅이지
 본낭군은 뽕쌀 범벅
 훗낭군은 찹쌀 범벅
 오다 가다 만난 님은
 굴로리 쟁반에 무리실 범벅
 수박 같이 두렷한 님
 참외 같은 단 말을 마오
 가지 가지 거시는 님이
 모두 다 내게는 거짓일세
 찰조 같이 찰찰현 내가
 쑥범벅 같은 당신에 말에
 어리야 둥글이 속이리까
 어리야 둥글이 속으리까
 사람이 살면 몇 백년 살아
 한 오십 살면 고만이지
 속절없고 원통한 세상
 주야 장장 긴긴 밤에
 이 내 할 일 마이 없어

범벅이나 개여 불가
 정월에는 꿀떡범벅
 이월에는 시래기 범벅
 삼월에는 쪽범벅
 사월에는 느티범벅
 오월에는 수리취범벅
 유월에는 호박범벅
 칠월에는 시루범벅
 팔월에는 햅쌀범벅
 구월에는 귀리범벅
 시월에는 무시루범벅
 동짓달에는 흰떡범벅
 섣달에는 찰떡범벅
 열두달 범벅을 개어 놓고
 이 범벅을 누구를 주나
 열두달 범벅을 누굴 줄까
 옥황상제 열라대왕
 동해용왕 관음 보살
 오백나한 칠전등 밑에
 골고루 드려 볼까
 아서라 그것두 허사로다
 아서라 그것도 허사로다
 글나이 개인 범벅
 반닫이 속에다 넣었다가
 남 모르게 정드른 님
 야밤 삼경에 오시거든
 일편단심 곁들이고
 은근히 드렸드면
 이보다 좋은 일이 또 있을까

- ⑤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 양지, 1982. 9. 18., 김익두 · 유화수 · 조사.
 창자: 김종순, 여 · 64.

* 떡

미가 미가 찹쌀이
 팔고물에 풋고물에
 화장을 해 갖구
 목구멍으로 시집을 간다네

- ⑥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상고쟁이, 1980. 1. 30., 최내옥·권선옥·강현모 조사.
창자: 유순례, 여·75.

* 음식송

꿀보다 더 단건 일본 사탕
초보다 더 신 건 유면장네 꼬치장
독물보다 더 검은 건
옥배장네 밥일레라

- ⑦ 순창지방, 순창군청:『순창군지』, 1982.

썰렁썰렁 은어회
마박이네 송순주
너고 먹고 나도 먹다가
너 죽어도 나 몰라

- ⑧ 완주지방, 임동권:『한국민요집』.

* 생강

봉동에 아가씨는
생강장사
요쪽을 깨며는
무강이 나오고
저쪽을 깨며는
생강이 나온다

- ⑨ 남원군 보절면 금다리 다산, 1982. 10. 2., 김익두·유화수 조사.
창자: 김순례, 여·56.

* 묵

이 묵을 히서
누구랑 누구랑 먹으까
나랑 나랑 먹세
이 묵을 끼리서
누구랑 누구랑 먹으까
나랑 나랑 먹세